

“종단현안 놓고 종도의견 듣는 것 출가 후 처음 본다”

■ 부산 울산 경남권 대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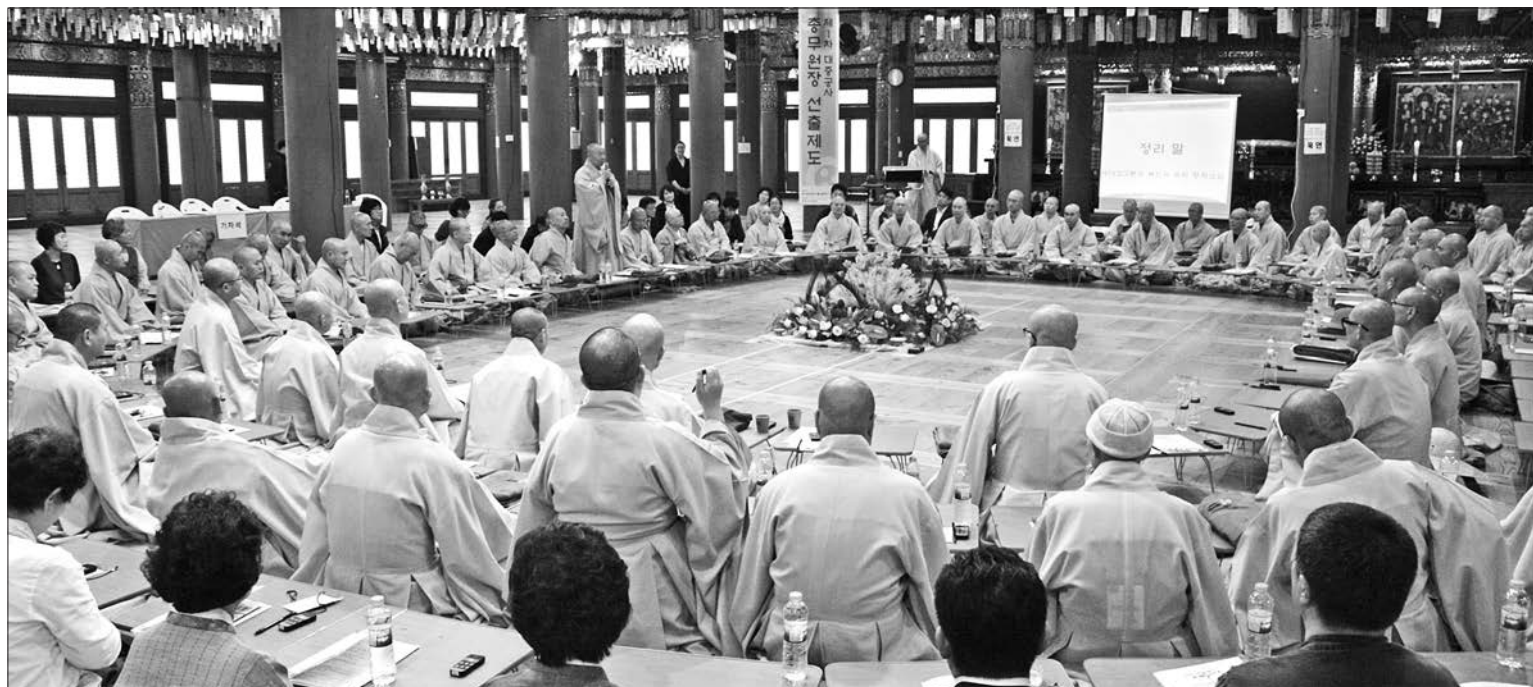
전면적 직선제 선호 70%
‘문제점 개선해야’ 우려도
가감 없는 솔직한 견해

총무원장 선출법 개정 전
전국 권역별 여론수렴 호평

교구본사 주지 스님도, 승남 55년의 노스님도, 부처님 율장에 정통한 율학승가대학원장 스님도, 제가자도, 비구니 스님도, 수좌 스님도, 말사에서 조용히 포교하는 스님도 한 마음으로 주장했다. “조계종의 주인은 전 종도이며 승남 소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종단의 대표인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교구 본·말사 스님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모두 종도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선거제도, 직선제를 주장했다. 그리고 종단에서 전국을 돌며 여러 스님과 제가자들을 의견까지 듣는 사부대중 대중공사에 대해 “종단 역사상, 출가 50년만에 처음 본다”는 극찬까지 나왔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부산울산 경남 지역 대중공사가 지난 23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사부대중공사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가 주관한 이번 대중공사는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대중들의 공의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공사에는 통도사 주지 영배스님, 해인사 주지 항적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 쌍계사 주지 원정스님을 비롯한 이 지역 교구의 중앙종회의원, 각 사찰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신행단체 대표 등 스님 80여명, 제가자 50여명이 참석해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소재로 지난 23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부산울산 경남 지역 대중공사’. 이 자리에 참석한 총림 주지 스님을 비롯한 출제가자 130여명은 종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 자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별 10명의 선거인단이 참가하는 현행 간선제 △갈마위원회의의 검증은 거친 후보자들을 500명 내외의 선거인단이 2~3명으로 추려 이들 중 한 명을 종정예하가 무작위로 선출하는 일명 ‘염화미소법’ △총무원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2~3인을 대상으로 제가자까지 참여하는 2000~2500여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로 선출하는 ‘종단쇄신위원회’ △직선제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구했다. 각 주좌측은 4가지 선출안을 놓고 토론을 펼치기 전과 후 투표를 해 대중들의 여론을 살폈다. 결과는 구족계 수지자 전원이 참여하는 전면적 직선제가 7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이같은 여론은 대중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가장 먼저 의견을 개진한 통도사 주지 영배스님은 “돈 문제, 교구본사 담합 등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폐해를 없애

기 위해 3가지 방안이 제시됐는데 염화미소법과 종단쇄신위법은 기존 선출방식이 노출한 부정적 면을 극복하지 못한다”며 “해결할 길은 직선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선출이라는 말 속에 이미 민주적 방식이 내포돼 있으며 직선제야말로 대중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선거법”이라고 강조했다. 영배스님을 시작으로 발언한 100여명의 스님 제가자들은 승남 소임 교구 비구 비구니 구분 없이 모두 전면적인 직선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스님들의 직선제 주장은 총무원장 선출제도보다 종도들의 의견이 막힌 종단 풍토를 개선하는 방안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 쌍계사 종회의원 성조스님은 “출가한지 55년 된 소남도 총무원장 선거에는 두 번 밖에 참여하지 못했다. 선원에서 정진하고 말사에서 수행 포교하는 스님들은 열반할 때까지 종단 대표자를 뽑는데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이라고 꼬집었다. 해인사의 한 말사 주지 스님도 “총무원장은 사부대중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해인사 승가대학장 스님은 “교수사 스님들과 논의해서 그 결과를 대표로 전달하기로 했는데 모두 직선제를 선호했다. 그 이유는 소외 방지가 가장 컸다”고 말했다.

종도들이 종단 운영이나 결정 과정에 소외되지 않는 방안으로 직선제를 선호하다보니 참가 범위도 구족계 수지자 전원으로 확장됐다. 심지어 ‘참여 자격을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아 제가자까지 포함시키는데 거부감이 없을 정도였다. 과거 같으면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을 율원 스님들도 전면적 직선제가 “율장에 맞다”며 적극 호응했다. 통도사 율원장 덕문스님,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서봉스님 등은 “갖 구족계를 받았든 장로는 구분없이 종단 구성원은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종단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부처님 근본정신이며 총무원장 직선제 선출

은 근본정신에 합당한 제도”라고 거듭었다.

이번 종단 주제로서 종도를 강조한 스님들은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의견을 모으는 ‘사부대중100인 대중공사’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냈다. 해인사 주지 항적스님은 “종단의 중요 현안을 놓고 대중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출가하고 처음 본다. 적어도 우리 종단 출범하고 종단이 대중의 의견을 들으려 나선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모아 종도들이 원하는 총무원장 선출법을 만들면 선거가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쌍계사 주지 원정스님도 “대중들이 모여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생전 처음 본다”며 “문수의 지혜가 이런 지리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직선제를 하되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통도사 보광원의 한 노스님은 “과열 혼탁 금권으로 신뢰를 추락시키는 선거는 그 방법이 무엇이든 안된다”며 “직선제를 하되 대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양의 한 스님도 “직선제를 하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었다.

한편 이날 대중공사에서 사회를 맡은 일감스님은 “지난해 대중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대중공사를 9차례에 걸쳐 진행했는데 그 결과 토론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의견을 모았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시대 실정에 맞는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대중공사를 염려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중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는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6월 총회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울산 경남 대중공사는 지난 9일 대구 경북, 12일 대전 충청, 15일 호남, 18일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렸다. 26일 강원, 28일 제주를 끝으로 의견수렴을 마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6월 총회에 상정한다고 사부대중위원회측은 밝혔다.

통도사=박무영 기자 chisan@ibulgyo.com

이 시대 청춘들과 ‘출가’를 말하다

교육원 5월26일 출가콘서트

흥룡한 수행자를 찾기 위해 종단이 발벗고 나선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오는 5월26일 오후4시 서울 동국대 강당에서 ‘청춘! 자유를 향한 날개짓’이란 주제로 출가콘서트를 열고, 이 시대 청년 및 일반인들과 고민을 나누고 출가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아사리 원영스님(BBS ‘아침공경’ 진행)의 사회로 진행되는 출가콘서트에서 ‘죽문죽살’로 정평이 난 평화재단 이사장 범륜스님이 패널리스트 나서 청춘들의 고민과 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또 나란다 축제 대상 수상자로, 고등학교 졸업 직후 출가에 올해 청암사승가대학을 졸업한 고우스님과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가 함께 참여해 20~30대 또래들과 눈높이를 맞춰 이야기를 나눈다. 이밖에 2014년 학인연보시연대회 대상 수상자 보견스님, 지난해 외국어스피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고우스님과 동국대 학인 스님 팀인 ‘Show me th Buddha’ 팀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출가콘서트는 당일 선착순 무료입장이며, 사전예약(monk.buddhism.or.kr)도 가능하다. 오는 가을에는 부산영남권에서도 출가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현경 기자

가천리 절터서 7C초 유구 발견

▶1면에 이어

그러나 함께 확인된 밀양 봉성사터가 보존결정된 것과 달리 지난해 매장문화재위원회는 교각 자리에 어떤 유적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교각설치를 승인하면서 비판을 샀다. 특히 조계종은 지난날 입장문을 통해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정밀발굴조사와 함께 노선을 우회해 절터 보존 정비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총무원 문화부장 정안스님은 “추가발굴조사를 통해 보존방안을 제정토하겠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종단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천리절터는 삼국 말부터 고려까지 사찰 유적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절터로 반드시 원형보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불교계가 나서 복지함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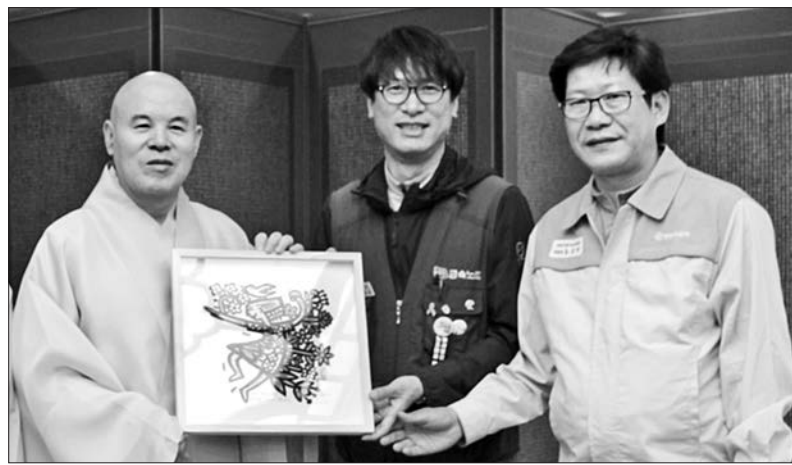
김득중 쌍용차 노조지부장 등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인사

7년만의 합의로 단계적 복지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 노조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5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홍봉석 쌍용차 노조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 쌍용차 노조 6명의 예방을 받았다. 2014년 평택공장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던 동료 노동자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던 김득중 지부장은 이날 총무원장 스님과 밝은 모습으로 마주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년 동안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종단에서 ‘쌍용차 사태’에 큰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줘 감사하다”며 “불교계가 나서줘 큰 힘이 됐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종단은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대규모



지난 25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쌍용차 사태’ 해결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가운데).

정리해고로 설 곳을 잃어버린 해고노동자에게 꾸준한 지지를 표명해온 바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012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농성장을 직접 찾아 29일째 단식중이던 당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과 종교계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후 5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연계, 또 한 번 농성현장을 찾아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불교시민사회 단체 또한 100일 1000배 정진, 오재두지 행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이날 김득중 지부장은 “지난번 총무원을

찾았을 때도 총무원장 스님께서 해고노동자들이 만든 첫 번째 쌍용차를 사주시겠다고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셨다”며 “어느 누구 못지않게 관심 가져주신 만큼 모든 해고노동자가 일괄 복직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쌍용차 판매가 늘어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복직을 기다리는 해고자들이 하루빨리 다시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계에서도 쌍용차 구입지지 등을 통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쌍용차가 상황이 나아지길 바란다”며 “해고노동자가 모두 복직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화답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성철스님 우표’ 나온다

우정사업본부, 6월27일까지 발행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전 조계종 총정 성철스님의 생전 모습을 담은 우표가 발행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현대 한국인물 시리즈’의 네 번째 우표로 성철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우표를 오는 6월27일까지 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행될 우표에는 두 종교 지도자의 친필 글씨도 함께 실려 주목된다. 성철스님의 우표에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뜻의 ‘불가지심(不欺自心)’, 김 추기경의 우표에는 ‘눈은 마음의 등불’이란 불경씨가 들어간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인물당 60만~70만 장씩 만들어진다. 실제 편지 발송에 쓸 수 있도록 한 장짜리 우표는 물론 수집가들을 위해 여러 장을 모은 전지 형태로도 나온다. 낱장 가격은 300원이며 20매 묶음 단위로 판매된다.

현대 한국 인물 시리즈는 우정사업본부가 매년 한국의 주요 인물을 선정해 이를 모델로 발행하는 기념우표다. 지난 2013년 야구인 장효조, 최동원을 시작으로 2014년 대표작인 독립운동가인 만해스님, 이육사, 운동주에 이어 지난해에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과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우표가 만들어졌다.

하정철 기자 hjc@ibulgyo.com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해안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지난 22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해안스님(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해안스님(사진)은 6대 포교원 집행부에 이어 7대 포교원 집행부에서도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소임을 맡게 됐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6대 포교원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만큼 잘 하시리라 믿고 있다”며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행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한 해안스님은 1988년 용주사에서 송담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2000년 송광사에서 범룡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울산사암연합회 감사 소임을 맡고 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대중과 함께 교구 이끌 것”

범주사 주지 정도스님 고불식
쌀 2000포 충북지사예 전달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범주사 주지 정도스님이 주지 취임을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식을 열고 원만한 교구운영을 서원했다. 지난 22일 범주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주지 취임 고불식에는 범주사 조실 월서스님, 회주 월탄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언구 충북도지회의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제32대 범주사 주지 정도스님은 취임사에서 “삼보를 공경하고 어른 스님들께 물어서 대중



제5교구본사 범주사 새 주지 정도스님(오른쪽)이 지난 22일 취임 고불식에서 조실 월서스님을로부터 직인을 전달받았다.

들과 같이 범주사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범주사 조실 월서스님은 “주지란 막중한 책임과 임무가 부여된 것”이라며 “금오문종의 종가 사찰로서 문종의 화합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도스님은 탄성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76년과 1979년 범주사와 범어사에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경찰학교 경승실장과 제14·15·16대 중앙종회의원, 총주 창릉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편 이날 고불식에서는 축하화환 대신 전달받은 쌀 2000포를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시영 충청지사장